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정 대선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청 주변에 떠도는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 지적
이달희 의원, “이미 마음은 대선 쏠발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정을 대선의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그간의 의문스러운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남수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를 묻는 질의로 포문을 연 이 의원은 “경기도청 김남수 정무수석이 김동연 지사 대선 캠프를 차리기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도청에 돌고 있다.”라며,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아니다. 낭설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정 홍보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김동연 지사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쏠발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동연TV’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언급에 이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김 지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들수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된 라면을 끊여 지사에게 갖다 드리는 여성 공직자 영상도 언급하며, “작전 미담이 너무 치졸하고 낮간지럽다”며 김 지사의 행보를 질타했다. ☹